

第198回國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1號

國會事務處

日時 1998年9月30日(水)
場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現況報告

- 가. 韓國職業能力開發院
- 나. 韓國教育課程評價院

審査된案件

1. 現況報告

- 가. 韓國職業能力開發院 2面
- 나. 韓國教育課程評價院 2面

(14시27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薛 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定期國會 開會中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國회가 空轉됨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회의를 한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위원을 포함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소속 위원 7인의 명의로 제198회 國會 教育委員會 제1차 회의를 오늘 오후 2시에 개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委員會開會要求書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기 때문에 부득이 國會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國民회의 幹事인 본위원이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하루속히 院內에 復歸하셔서 國정을 같이 논해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기원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6.25 이후 최대의 國難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이 國會와 國會議員들에 대한 批判과 疾視가 참으로 극

도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國會와 國會議員들은 제 기능을 다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國정을 논의해야 되고 산적한 법안들을 처리해 내야 합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野黨議席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점 참으로 유감스럽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여야 할 것 없이 이 國難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색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98回 國會 定期會 第1次 教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立法調査官 文濟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職務代行 薛 勳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다시 오신 鄭喜卿 委員을 소개하겠습니다.

鄭喜卿 委員께서는 지난 번에 우리와 같이 교육위원회를 하시면서 대단한 활약을 보이신 우리 교육계의 원로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鄭喜卿 委員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喜卿委員 잠깐 발언을 해도 됩니까?

제가 교육위원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國會議員

이 되어서 처음 배석된데가 외무통일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는 96년10월20일경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黨의 사정에 의해서 教育專門家라고 교육위원회에 배석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번에 제가 解明書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제 남편이 설립한 청강대학의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이익의 상충이라도 있는 양 오해받을 수 있다 해서 제가 저의 평생의 사업인 교육위원회로 오지 않고 외무통일위원회로 갔었는데 黨의 명을 받아서 와서 나름대로 성실히 해 왔습니다.

제가 全國區로 있으면서 2년후의 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에게는 시한이 있습니다. 시한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前半期國會에서 교육위원회에 성실하게 봉사하면서 후반기에서도 그렇게 봉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난 8월달에 國회가 여러 가지로 언론의 비판을 받으면서 불거져 나온 것이 소위 常任委員會의 利益相衝問題가 나왔고 거기에 저도 거론이 되어서 다시 외무통일로 갔습니다.

저는 제 양심이라든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原則의 問題요, 政治하는 사람으로서의 所信의 問題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느 위원회에 있든 나에게 허락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봉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大衆媒體의 무책임한 발언에 의해서 자리를 옮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 소신으로는 제가 대학에서 13년간 교편을 잡았고 고등학교의 教育行政을 18년 했고 그리고 다행히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남편이 설립한 전문대학교의 이사장을 하면서 그것이 나의 教育的인 洞察力을 보다 깊이 해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나의 國家奉仕에 방해가 될 수는 없는 조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교육은 卓上空論이 아닙니다. 교육의 현실을 바로 알고 교육계가 앓고 있는 그 아픔을 같이 겪어보고 고민하는 그런 國會議員이 많을수록 교육계는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난 8월말과 9월초는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國際議員聯盟會議때문에 러시아에 나가 있는 동안에 黨에서 다시 결정을 내려서 복귀를 시켜 주신 것은 매우 지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동안 열심히 교육문제를 겪어보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해결하는 일에 일조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돌봐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학교의 이사장도 아닙니다. 이사장직도 내났습니다. 이사장직도 내놔버렸는데 그러나 혹시 제가 저의 전문직과 관련된 專門知識, 專門經驗 그 이외에 教育의 어떤 得을 보려는 눈치가 저에게 보이거든 꼭 붙잡아서 타일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일은 앞으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의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薛 勳 鄭喜卿 委員!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시면서 맹활약을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더 큰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1. 現況報告

가. 韓國職業能力開發院

나. 韓國教育課程評價院

(14시35분)

○委員長職務代行 薛 勳 그러면 議事日程 제1항 韓國職業能力開發院과 韓國教育課程評價院에 대한 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말씀드린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양 단체들에 대한 一括質疑를 하고 答辯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입니다.

존경하는 薛 勳 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主要業務報告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本院의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常任監事인 成者璇 監事입니다.

李 銑 副院長입니다.

姜成遠 企劃室長입니다.

李鍾聲 課程開發部長입니다.

申明勳 評價資格部長입니다.

黃興培 總務部長입니다.

(산하단체 간부인사)

張錫敏 政策研究部長은 전문직여성한국연맹 전

주클럽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서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진로’라는 주제로 주제강연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職業能力開發院의 一般現況을 설명드리면 설립목적은 직업교육훈련정책 연구,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평가, 직업정보의 수집·가공·관리·보급, 그리고 자격제도의 연구·개발 사업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職業教育訓練의 활성화와 국민의 職業能力向上에 이바지 하는 것입니다.

沿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1997년3월27일 韓國職業能力開發院法이 제정 공포되고 1997년9월10일 교육부와 노동부의 공동출연에 의해서 설립되어서 1997년10월18일 개원하였습니다.

主要機能으로는 職業教育訓練促進法에 근거해서 정부에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職業教育訓練基本計劃의 수립을 지원하고 국무총리 산하의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資格基本法에 의해서 국가자격신설절차 업무 지원,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職業能力認定制 운영지원업무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韓國職業能力開發院法에 의해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연구·개발,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인정 및 IMF 극복을 위한 실업자 재취직 프로그램개발·보급 업무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4월경에 개최예정인 제2차 세계 UNESCO 직업기술교육회의에 대한 개최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本院의 組織으로는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있습니다.

理事會에는 이사장, 원장, 8개 정부부처의 당연직 이사, 추천직 이사 등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組織은 2室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室·部 밑에는 상설조직을 두지 않고 매년 사업에 따라 팀을 구성하는 非常設팀制를 운영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本院 定員은 130명 정원에 現員은 99명으로 현재 31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1997년도 開院 당시 98명으로 출범을 해서 1998년도 상반기에 缺員人力에 대한 公開募集을 계획하였으나 정부의

政府出捐機關에 대한 構造調整이 추진됨에 따라 구조조정차원에서 결원인력의 채용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원의 1998년도 豫算內譯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歲入豫算은 총 85억500만원으로 세입예산 중 교육부출연금 70억8,600만원, 노동부출연금 12억6,200만원, 자체수입 1억5,700만원입니다. 歲出豫算은 정부 예산삭감 방침에 의해서 追更豫算으로 한 내역은 인건비 43억6,800만원, 사업비 21억7,100만원, 경상운영비 19억6,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원의 主要業務 推進狀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수행을 하고 있는 研究事業은 크게 基本研究事業과 受託研究事業인데 기본연구사업 36개 과제, 수탁연구사업 4개 과제 계 40개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연구사업으로는 政策研究課題, 基礎研究課題, 現場研究課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정책연구과제로는 기준훈련의 비용인정 방안 연구등 21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기초연구과제로는 직업교육훈련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등 10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장연구과제로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직종별 직무분석등 5개 과제 총 36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6개 研究課題에 대한 연구내용은 推進實績, 向後推進計劃 등을 자료 5쪽에서 29쪽까지 상세히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 보고는 油印物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제1호 부록에 실음)

○委員長職務代行 薛勳 예.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료 29쪽을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9쪽은 受託研究事業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4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수탁과제 4개 과제에 대해서는 29쪽에서 32쪽까지 상세히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內容報告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薛勳 예.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료 33쪽을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7년도와 98년도 豫算執行現況 그리고 97년도 主要事業推進實績 그리고 97년도와 98년도 自體監

查實施結果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는 設立年度로서 설립에 필요한 出捐金 50억원을 教育部로부터 전액 출연받아 인건비 7억 8,000만원등 46억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8년도는 98년8월31일 현재 인건비 20억7,200만원등 28억8,900만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執行率은 예산대비 약 34%입니다.

예산에 비해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1998년도 研究課題 選定이 다소 늦어져 가지고 3월경에야 본격적으로 研究事業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연구과제의 경우 報告書 印刷등 主要豫算執行이 연말에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97년도 主要事業 推進實績으로는 職業教育訓練에 관한 國家基本計劃樹立을 위한 기초연구 등 5개 기본연구과제와 공모 「2·1체제」 교수·학습자료개발사업 등 3개 수탁사업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자료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金顯煜委員 公考 2·1체제가 됩니까? 투 플러스 원입니까?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예, 투 플러스 원입니다.

○金顯煜委員 2+1이라고 그러지 2·1이라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 같다 말이에요.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예, 투 플러스 원 체제입니다.

자료 34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設立年度로서 10월에 開院하여 日常監査는 계속해 왔으나 별도의 自體監査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98년도 자체감사결과는 자료 34쪽에서 36쪽까지 그 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內容報告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薛勳 예.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예, 끝으로 개인 이후 지금까지 政策세미나, 討論會 등 開催 實績과 主要發刊資料目錄에 대하여는 附錄으로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37쪽과 38쪽에 상세히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韓國職業能力開發院의 主要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薛勳 예, 그러면 다음에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보고해 주십시오.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朴道淳 韓國教育課程評價

院長 朴道淳입니다.

존경하는 薛勳 委員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우리 院의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院은 출범한지 이제 9개월밖에 지나지 않는 創立 草創期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主要業務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院의 任員과 幹部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泰雨 常任監事입니다.

崔錫珍 企劃調整室長입니다.

趙蘭心 教育課程研究本部長입니다.

許敬哲 教育評價研究本部長입니다.

柳栽澤 教育情報支援室長입니다.

宣炯基 考查管理本部長입니다.

李東純 事務局長입니다.

(산하단체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韓國教育課程評價院 主要業務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一般現況과 主要業務 推進狀況 그리고 其他事項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연구·개발하고 각종 學力評價를 실시함으로써 學校教育의 質的 向上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設立經過를 말씀을 드리면 95년5월31일 教育改革案 발표시에 教育課程評價院의 설치 방침이 발표되었고 97년8월22일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이 공포됐습니다. 그리고 98년1월1일 韓國教育課程評價院이 開院이 되어서 지금 9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室, 3本部, 1局에 140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機構는 理事會 밑에 企劃調整室, 教育情報支援室, 教育課程研究本部, 教育評價研究本部, 考查管理本部, 事務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下部는 팀제로 역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定員은 현재 140명입니다마는 현재 인원은 110명으로 되어져 있고 大學修學能力試驗 수행을 위해서 教育部 所屬 公務員 20명이 별도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장소는 江南區 淸潭洞에 위치한 1,730평의 5층 건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98년도 實行豫算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지입니다. 저희 院은 評價에 의한 能力給制를 도입을 한 年俸制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전체 歲入은 政府出捐金 72억3,000만원과 自體收入 94억2,200만원으로 해서 총 166억5,200만원으로 수입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 人件費는 38억8,000만원, 사업비가 115억5,500만원, 경상운영비가 12억1,700만원 해서 166억5,200만원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자체 수입은 전부가 다 大學修學能力試驗 手數料입니다.

6페이지에 있는 主要業務 推進狀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本院의 主要機能을 말씀드리면 國家水準의 教育課程, 教科書, 教授·學習資料 開發을 통해서 질 높은 교육구현에 이바지하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며 두번째는 教育課程과 學力評價를 연계해서 시험위주의 고질적 병폐의 근원적인 해소에 기여하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등 각종 평가를 專門化해서 학교교육을 正常化시키고 私教育費를 경감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教育情報를 학교에 제공하고 評價資料를 제공해서 교육의 效率性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있는 研究事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사업은 현재 22개의 研究課題가 수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그 연구사업은 전체를 간략히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教育課程 關聯 研究로 7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관련되어서 段階型·深化補充型 教育課程 現場 適用 研究를 비롯해서 3개의 7차 교육과정에 관련된 연구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教授-學習과 관련된 연구로는 學習 不振兒 指導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연구를 비롯해서 2개의 연구가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教科用 圖書 開發과 관련된 연구로는 교과용 도서 모형 개발과 현재 1종 도서와 2종 도서, 1종 도서 研究開發과 2종 도서의 檢認定 業務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教育評價와 관련된 연구로는 高等學校 教育 必須 10대 과목에 대한 絶對評價 基準 研究를 비롯한 5개의 연구가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教育成就度 國際比較研究로 제3차 수학·과학 국제비교연구가 수행되어지고 있고 OE

CD에 의한 教育指標研究를 다른 나라와 함께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教育課程 評價와 관련된 연구로는 教育課程 및 評價 研修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비롯해서 2개의 연구가 수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大學修學能力試驗과 관련된 연구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제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련된 연구를 비롯해서 5개의 연구가 수행되어지고 있고 그 중에는 大入 銓衡資料 중에서 面接方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연구가 함께 수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研究事業은 지금 7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있는 22개 과제가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 10월19일부터 11월18일까지 출제를 하기 위한 일이 계속되어질 것이고 최종결과는 11월18일날 발표되게 되어 있습니다. 應試願書의 경우는 현재 대략 86만8,000명의 학생들이 응시원서를 내어서 지금 電算處理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되어진 것은 양해를 하신다면 거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제1호 부록에 실음)

그리고 기타 저희들이 보는 시험으로 99學年度 高等學校 入學選拔考査를 市·道教育廳의 위촉을 받아서 금년도에 수행할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大學·研究機關 專門研究要員 推薦對象者 選拔試驗을 이미 지난 2월과 8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선발을 하는 그런 시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高入·高卒 檢定考試 出題業務를 담당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教育部와 業務移管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에 23페이지입니다. 98년도 豫算 執行狀況을 8월31일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 166억5,200만원 중에서 현재 44억8,000만원이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게 집행되어진 이유는 修能試驗에 관련된 것이 모두 10월달에 집행되어지기 때문에 비율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韓國教育課程評價院의 主要業務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薛 勳 예, 朴道淳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마는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실 예정인데 질의를 일괄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國會法 제60조 규정에 의하면 각 위원의 첫번째 발언시간은 15분 이내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鄭喜卿 委員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喜卿委員 자료도 지금 받았고 또 설명도 매우 간소했기 때문에 問題把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 다 금년에 本格的으로 일을 시작한 機關이기 때문에 사실은 새 정부 들어와서 일을 시작한 기관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고 두 기관이 다 時代的인 그런 使命이라고 그럴까요 課題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러한 두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설명이 간단하셨기 때문에 업무과약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職業能力開發院에 묻습니다.

첫째는 즉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그 研究課題들의 기본틀은 굉장히 방대하다 라고 느낍니다. 방대하다고 느끼면서 또 하나 이제 國際關係의 연구들도 좀 많고 한데 우선 지금 職業能力開發院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IMF체제하에서의 失業者問題도 다루는 것인지?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을 제시할만한 연구를 이미 하신 것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40여개의 主流 그러니까 그 研究事業이 한 보따리로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금년에 가장 중요시하는 主流研究의 메인스트림(mainstream)이 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開發院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예산 중에서 自體收入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성격의 수입을 자체수입이라고 하시는지 또 이것은 반가워서 여쭙어 보는 것입니다.

또 자체수입의 확대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러한 수입원인지를 여쭙어 보고 싶고요 마지막에 豫算執行하신 것을 보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5억에서 지금 28억여원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그럴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것이 研究事業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연구사업이 移越이 되면서 예산이 이월이 되는 건지 아니면 흔히 우리가 떠도는 소문으로 듣듯이 마지막달에 가서 그냥 얼렁뚱땅 다 집행하고 말 것인지 그것을 좀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하게 집행이 되었으며 그것을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能力開發院에서 저희 國會議員들한테 금년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또 이것이 저희가 통과시킨 법에 의해서 설립됐는데 금년에 그 研究事業의 메인스트림이라고 그럴까요 그 모습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설명을 해주셔야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韓國教育課程評價院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도 참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여기는 오히려 제가 연구사업의 과약이 좀 가능합니다.

하나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금년 봄에 教育部長官께서 발언을 하셔서 신문에도 많이 논의가 되고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사는 大學入學銓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금년에 장관 부임하시고 나신 다음에도 상당히 많은 발언이 있으셔서 일선 학교나 학부형들은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신문에서도 봤고 소문으로도 들었습니다마는 영국의 제도, UCAS를 좀 도입을 할 생각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그것을 스터디하려면 아무래도 우리 評價院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교육부의 입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여쭙어 봅니다.

그리고 高等學校 課程別 必須科目의 국가공통 절대평가 기준개발 연구를, 그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이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도 밀접하게 관계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것을 가설로 내놓고 이것을 하시는지 그것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 두 기관이 모두 새로 시작하는 기관이고 저희 나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를 얻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薛勳 예, 鄭喜卿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金許男 委員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金許男委員 사회 보는 분이 무조건 하고 질의

만 하고 하라고 했는데 질의하는 사람에도 재량권을 쥐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먼저……

○金顯煜委員 일문일답으로 할 거예요?

○金許男委員 一問一答으로 할 것은, 많이는 안해도 간단한 것은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薛 勳 예, 하십시오.

○金許男委員 예,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간단한 말씀입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의 원장님께 좀 말씀 물어 봅니다.

이것이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평가는 기준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이는 안될 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이라는 교육의 어떤 내용, 제시된 어떤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념이라든지……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좀 教育基本法 제2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朴道淳 제가 지금 제2조를 기억을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金許男委員 모릅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教育의 目的이 있고 教育理念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적이 있고 표준이 있는 가운데 평가가 나오는 것이지 목적도 모르고 이념도 모르고 뭘 가지고 합니까? 우리는 標準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에 맞도록 모든 것을 평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들어가 주세요. 한번 연구해 보기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하고 이념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저 덮어놓고 숫자적으로 따져 놓고 이렇게 한다면 이 교육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니 참 곤란합니다. 한번 전부 연구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教育課程, 教育研究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教育의 基本理念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이 합당하냐, 합당 안하느냐? 이 교과서를 전부 봐도 거기에 기준이 서야 될 것인데 기준없이 지금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기준에 의해서 전부 교과서들을 만들어 놔야 아이들이 그 교육이념이나 교육목적에 합당한 교육이 되

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大學修能試驗에 있어서 우리 시험문제 내는 것이 教科書 내에서 하느냐, 교과서 바깥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물어보냐 하면 교과서를 여러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 쓰고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어느 한 사람 것만 딱 뽑아 놓고 하면 다른 데 없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과서를 놓고 다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한테 공평하게 채점이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것을 연상합니다. 내가 사실상 一問一答으로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여러 사람 위해서 오늘 간단히 합니다.

修能試驗을 出題할 적에 될 수 있으면 教科書 내에서 또 교과서가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종류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공통적인 문제, 어느 교과서에도 그것은 있다 하는 그런 문제들을 골라서 내 주어야 어느 교과서를 가지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손해 안보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職業能力開發院 답변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직접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實業高等學校, 工業高等學校 이런 데다 委託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연구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金許男委員 연구한다는 것보다도 직업교육을 한다면서요?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職業教育訓練에 관한 綜合的인 研究를 합니다.

○金許男委員 예, 연구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까?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교육은 아닙니다. 研究하는 것입니다.

○金許男委員 내가 왜 이런 것을 말하느냐 하면 釜山에서 내가 봤는데 失業者가 있습니다. 자기 졸업한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4개월인가 5개월간 봉급 탔대요. 그 학교 안 나가는 것입니다. 출석만 찍 해놓고서는 그저 가서 봉급만 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래 가지고서 이게 되겠나 이것을 내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실 연구할 적에 이런 것이 안되도록 연구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그저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형식만 서류로 갖춰 놓으면, 이것이 우리 부산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체적입니다. 또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천억이 막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에 실제로 정상적인 교육이 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그저 땡땡이 놀고 그저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철저히 연구해서 한 사람도 그렇지 않고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예.

○金許男委員 그것을 후에 計劃書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薛勳 예, 金許男 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顯煜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顯煜委員 오늘은 韓國職業能力開發院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한 노고에 위로도 드리고 또 격려도 할겸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출연하는 부처가 두 개 부처입니다. 教育部가 출연하는 것이 약 70억이 좀 넘고 勞動部에서 한 12억이 넘는데 전체 83억 예산 중에서 대략 7대 1의 비율로 教育部와 勞動部가 나누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韓國職業能力開發院이 誕生할 때도 우리 教育部 實務者들이 대단히 애를 많이 썼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고를 겪으면서 출생을 했는데 이 기구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 발전의 미래는 전적으로 職業教育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직업교육이 시대에 맞는 직업교육 또 情報化, 知識化 社會에 맞는 직업교육 그리고 國際的인 競爭力을 가진 직업교육을 여러 개의 단위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낼 때 우리 국가의 세계적인 경쟁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研究機關이 항상 두 개 부처와 연계해서 이루어졌을 때는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勞動部로부터 여러 가지 압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국회에 와서 國政監査를 할 때 教育委員會와 勞動委員會 두 개 위원회에서 어느 한쪽에 국정감사의 임무가 완전히 맡겨져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경험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정부는 두 개 부처 사이에서 겪는 어려움

이 현실적으로 무엇이고 또 우리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야기되는 國政監査에 대비해서 職業能力開發院의 입장에서 어떻게 教育委員會가 해주면 연구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研究委員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보람있게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원장의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번째는 그 동안에 受託 研究事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실적하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1 체제가 독일에서 성공한 체제인데 직업교육이 가장 탁월하게 성공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예상되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34페이지 수탁 연구사업, 두번째 '실업계고교 지적과 교재 편찬사업' 이것은 지적, 지오그래피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 모양이지요, 그런가요?

실업계고교 지적과 교재편찬, 이 '지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예, 地籍圖,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金顯煜委員 그러니까 地籍圖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예.

○金顯煜委員 그러면 '지적과'가 아니지 地籍과 관련된 교재를 만든다…… 알겠습니다. 이제 實業系高校를 위한 教材를 만드는 것인데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로 얼마나 방대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의 업무에 지금 종사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앞으로 기구를 충분히 활성화시키고 또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려면 어떠한 정도의 인력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분위원이 불 때는 아직도 남아 있는 여력이 많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는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薛勳 金顯煜 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朴範珍 委員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朴範珍委員** 예, 朴範珍 委員입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韓國教育課程評價院 設立이 추진될 때 우리 教育委員會에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능이 기존의 韓國教育開發院과 대부분 상당히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또 大學修學能力試驗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國立教育評價院 조직을 해체하고 새로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시험을 관리할 때 시험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두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아 보면 역시 당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능이 한국교육개발원과 상당 부분이 지금 중복되고 있다 하는 인상을 저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중복된 부분이 많다고 그러면 역시 기능 재조정을 하거나 통합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大學修學能力試驗 管理에 있어서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제대로 지금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차질이 없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言論報道에 의하면 앞으로 教育改革 次元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신에 大學入學資格考査로 전환을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학본부에서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大學入學資格考査 管理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할 예정인지? 또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業務報告 내용을 보면 그 중에 大學·研究機關 專門研究要員 추천대상자 선발시험을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韓國教育課程評價院 설립 본래의 목적에서 좀 넘어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요원 추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大學이나 研究機關 자체에 맡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韓國職業能力開發院에 대해 한 가지만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그 보고를 보면 그 연구

의 과제와 방향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까 마는 실제로 研究實績이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가지만 여쭙어 보고 싶은 것은 그 研究課題 중에는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인력수요 예측도 연구과제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그 동안 우리 教育部는 實業教育을 강화하기 위해서 高等學校의 경우에 인문 대 실업의 비율을 5대 50으로 조정하겠다 하는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의 주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주요한 政策目標을 슬그머니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러한 목표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發展方向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저서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勞動人口 중에서 製造業에서 일하고 있는 勤勞者가 근로자의 6분의 1밖에 안된다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教育部가 추진한 인문대 실업비율 5대 50은 아마 製造業을 중시하는 그런 産業社會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정책목표를 세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목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21세기는 지식이 지배하는 情報社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 중심이 되었던 산업사회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産業構造 變動에 따른 人力需要 豫測을 잘 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교육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은 담당연구위원이 사실 답변할 일이지마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研究結果에 대해서 어떤 설명할 자료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薛勳** 예, 그러면 盧武鉉 委員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盧武鉉委員** 미리 질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두 機構가 다 요 근래에 새로 생겼거나 또는 다른 기존 조직을 개편을 한 것 같은데 職業能力開發院하고 教育評價院이 그 전하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기존 기구가 改編되었다면 왜 이렇게 개편되었는지, 그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점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教育課程評價院 부분에 관해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주로 학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15페이지 맨 아래

‘OECD 국제비교 연구’부분에서 ‘읽기, 수학, 과학 과목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실생활 문제 해결능력, 시민의식 및 자기의식을 중심으로 비교 평가’하는 여기에 약간의 시사가 있습니다라는 教育의 目的을 生産性 있는 人間을 길러내는 것도 教育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겠지만 또 아울러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共同體의 構成員으로서의 市民教育도 중요한 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한 것도 목적사항에 보니까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이라고 해놓았는데 教育課程의 전반을 다룬다면 건강한 시민사회, 시민교육과 장차 職業人으로서의 생산성있는 인간을 길러나가는 그런 교육과의 관계에서 소위 市民教育은 대개 어떤 내용으로 지금 현재 교육에서 어느 수준으로 되어 있고 또 이런 연구대상에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추상적 질의라서 이해가 잘 안가실 지 모르겠는데 예컨대 저는 상업학교를 다녔는데 상업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그냥 막연하게 민주주의제도에 관한 교육만 3權分立이 어떻게 議會制度가 어떻게 하는 것만 배웠지 구체적으로 내가 투표를 왜 해야 되는지 집회 또는 시위의 권리, 요새는 별로 좋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런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교육과정에서 교통규칙에 관해서 약간 배운 것 이외에 요즈음으로 따지면 쓰레기분기수거라든지 목욕탕 가서 어린 학생들이 정말 물을 물쓰듯 하는데 그런 데 대한 實習教育 같은 것을 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업학교를 나왔는데 노동조합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데 대한 기초적인 권리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요새 어떻게 되고 있는지 教科課程을 일반적으로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가르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薛 勳 盧武鉉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라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할테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委員長職務代行 薛 勳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이무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鄭喜卿 委員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번째는 失業者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 제시 가능한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失業관련 研究課題를 열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차적으로 추진한 것이 2월에 연구조사가 시행되었는데 우리 나라에 失業者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고 그런 것을 교육 받을 수 있는 教育機關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일차적으로 조사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20개 직종을 선택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의 내용에 어떤 것이 담겨져야 하는가에 대한 職務分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지금 약 990개의 職業教育訓練機關에서 3,000여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서 지금 현재 약 14만명의 失業者가 再就職訓練을 받고 있고 8만여명이 앞으로 더 교육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교육부와 노동부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教育訓練프로그램이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失業對策運營協議會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노동부, 교육부 또 산업체의 교육담당자들이 모여서 수시로 협의를 해가면서 문제를 찾아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또 지금은 운영되는 것에 대한 전면실사를 노동부가 또 교육부와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했고 일차적으로 노동부가 하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정밀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하고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 失業者訓練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교육부와 협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훈련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몇 가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豫算上으로 자체수입 성격이 가능하냐 하는 것

인데 自體收入은 利子입니다. 자체수입을 위한 확보방안은 계속 강구중에 있고 장단기 발전계획에서 내년부터는 또 정부출연기관의 운영방식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자체수입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豫算執行에 있어서 지금까지 집행된 豫算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8월31일자 기준이고 9월말 오늘 현재로는 44%가 집행이 된 결과로 나와 있고 그외에 집중적인 研究費 投資가 10월에 될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외에도 報告드리지 않은 사항속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는 전산구매 7억, 임차료 7억, 인건비 30명 채용하자는 것에 대한 유보가 남아 있어서 그렇고요. 저희들이 研究課題를 추진하면서 豫算執行도 계획대로 집행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말에 가서 남는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許男 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연구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金顯煜 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개 부처의 관장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이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99년도부터는 政府出捐 研究機關들이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되는데 그때가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시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은 현 상태로 가면서 내년에 상황이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金顯煜委員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할 얘기있으면 하세요. 뒤로 미루었다가 후회하지 마시고요.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出捐의 성분으로 봐서 예산이 교육부가 83%입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14%이고……

○鄭喜卿委員 도와주는 성격이 다른 것 아니에요? 노동부에서 나오는 것은 조건이 다른 것 아닙니까?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研究事業費쪽입니다.

그래서 성격상으로 교육쪽이 강하고 研究內容上으로 보았을 때도 저희들이 크게 봐서, 현재 組織上으로 봐서 정책연구부, 과정개발부, 평가자격부 그것이 주 연구부서인데 정책연구부쪽에서 인력개발쪽이 경제사회쪽이고 그외쪽은 교육쪽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과 훈련도 합치면 크게 보아서 교육쪽으로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격상으로는 교육쪽에 근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薛 勳 그러면 李茂根 院長이 勞動委員會에도 나가서 답변하고 그러니까?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그렇습니다.

○金顯煜委員 앞으로 정기국회가 열리면 예결위도 그렇고 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두군데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그렇습니다.

○金顯煜委員 기쁜 마음으로 하고 계신 것이에요?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양가 시부모 모시기 바쁘니까.

○金顯煜委員 효녀는 효심이 강하면 그것도 괜찮은데 院長님께서 그런 마음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시정하면 좋겠는가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듣고 싶다는 것이지요.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저희 입장에서는 한쪽에서 중심을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가지만 양쪽에 계속해서 균등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顯煜委員 그런 정도는 얘기를 해야 우리가 알아서 하지요.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감사합니다.

그리고 金委員님 말씀하신 2+1체제의 產學協同, 특히 독일모형 강조하시고 문화적 제도적 배경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職業教育에서 產學協同은 활성화의 생명선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파트너쉽이 이루어 지려면 학교와 산업체간에 기본적으로 공동책임, 공동투자, 공동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產學協同體制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 하고 독일하고 비교하면 근본적인 文化體制가 독일은 產業體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그것이 어렵고 學校教育側 立場에서 어떻게 보면 짝사랑하는 정도의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실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理論적으로 좋고 또 우리가 그쪽으로 접근은 해야 되겠지만 산업체가 어떻게 이쪽으로 접근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안강구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顯煜委員 研究課題에 그것이 들어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예. 있습니다.

○金顯煜委員 産業體들을 계몽하고 산업체들을 계도해서 여기에 인볼브시키는 과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제의 열쇠는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묘안이 연구되고 있어요?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예.

100% 그것은 아니지만 現場實習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전문대학, 산업대학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느냐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金顯煜委員 이것은 아마 院長께서 現場으로 아주 분주하게 지도자들이 뛰어다녀서 현장에서 산업체들을 설득하고 또 테크닉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책상에서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독립된 開發院을 만들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런 소위 現場體驗을 통한 문제해결에 원장께서 맨발로 작업복을 입고 최소한도 1년동안은 뛰어다녀야 산업체들이 조금은 움직이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표언는 것 정도의 10분의 1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위원님 말씀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 實業系高校의 교과편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동안 교육부도 무척 노력을 했지만 教材開發에 대한 센터적인 기관이 없었습니다.

특히 實業系高等學校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직업기술교육 관련된 교재가 체계적으로 종적, 횡적으로 연계짓기 위해서는 教材開發센터가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장단기 발전계획에서 직업기술교육에 관련된 교재는 저희들이 맡아서 앞으로 實業系高等學校를 專門大學에 연결짓고 직업전문학교하고 기능대학교도 연결 지어가면서 체계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개발센터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장단기 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주전에 영국의 Q.C.A를 방문하고 왔지만 빨리 이런 체제가 구축되어야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金顯煜委員 영국의 무엇을 보고 왔어요?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資格制度하고 커리큘럼이 같이 통합되어 가지고 교재개발하고 자격제도 운영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朴範珍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研究實績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主要業務報告 38쪽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研究課題 5개하고 98년도 연구 과제 40개인데 실제로 연구보고서로 출판된 것은 38쪽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1차자료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여기에 나온 研究課題들은 저희들이 職業教育訓練을 앞으로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는 기본연구과제이면서도 실용적일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로서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을 먼저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高校職業教育體制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2000년도부터 초등학교 그리고 우리 실업계고등학교가 2002년도부터 7차 교육 과정이 실행이 되는데 그때는 10학년까지가 국민공통교육을 이수하게 되고 實業系高等學校의 경우에는 3학년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이 知識社會化와 더불어서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체제는 다양화하고 특성화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추어서 직업교육을 택할 수 있게 하지만 중추적인 직업교육은 고등교육단계 그중에서도 전문대학단계로 핵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職業教育의 體制가 그런 방향으로 잡혀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졸업자가 얼마만큼 직업교육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확일적으로 몇%다 하는 것 보다는 학생의 특성, 적성에 맞추어 가지고 고등학교부터 職業教育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양하게 주되 핵심적인 직업교육은 점차적으로 전문대학 수준으로 가고 고등학교에서는 직업교육에 관련된 전문기초능력을 강화하는 쪽에 비중이 두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盧武鉉 委員님께서 韓國職業能力開發院하고 教育課程評價院 전부다 새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로 발족되었느냐에 대한 배경과 전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정부차원에서의 職業教育訓練機關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미국, 독일 같은 데는 이미 60년대말에 지금 저희 韓國職業能力開發院과 같은 연구센터가 정부차원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미국은 NCRV, 독일은 BIBB,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Cere, 영국에는 Q.C.A 그리고 최근에는 교육부와 고용부가 합쳐서 교육고용부로 해서 교육과 훈련이 통합된 국가차원에서 人力開發하는 쪽에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조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韓國職業能力開發院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교육부 산하의 韓國教育開發院에 직업기술교육추진본부가 있었고 노동부 산하의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산업기술인력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韓國職業能力開發院이 설립되면서 이 두 연구소가 모체가 되면서 그외의 기능이 확대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인력개발을 하는 차원이 비단 직업교육, 직업훈련 그것이 아니라 통합된 인력개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태동되었다는 것이고 또 職業技術教育의 어떤 인력을 양산하는 준비교육 뿐만 아니라 平生教育 次元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더우기 지금은 평생동안에 직장을 한 다섯번 정도 바꾸어야 된다고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準備教育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계속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교육과 기업교육과도 연계되어야 되고 해서 직업인력을 양성하는 綜合的인 研究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전하고 이후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소견으로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저희 機關이 발족된 지가 채 1년도 되지 않고 또 國際化의 側面에서 보았을 때는 저희 기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薛 勳 職業能力開發院 李茂根 院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教育課程評價院 院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朴道淳 教育課程評價院長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鄭喜卿 委員님께서 대학입학전형제도에 대한 연구가 저희들 연구속에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

을 해주셨고 그리고 UCAS제도가 도입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기관의 성격이 初·中等學校로만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大學入學銓衡制度에 관한 연구는 저희들이 해야 될 원래 일로 법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학전형제도에 관한 별도 연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연구중에서 大學入學銓衡制度에 관한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면접에 관련된 연구만 별도로 정책과제 형태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UCAS제도가 大學入學銓衡制度에 도입되었는지에 관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릴 것이라고 그러면 지난 번에 대학입학전형제도 공청회를 9월18일에 했습니다. 그 公聽會 내용속에 보면 UCAS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教育部에서 10월말경에 종합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공통절대기준평가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원래 국가공통절대기준을 개발하려고 하던 것은 저희들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과 교육평가를 연계시키는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통절대기준 개발의 경우에도 교육과정에서의 목표와 내용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學校狀況에서 相對評價때문에 생기는 학생들간의 無限競爭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가급적 教育目標와의 관계만을 강조하는 그런 절대평가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연구가 추진되고 있고 또 다른 한가지 이런 기준을 개발해 주는 이유는 국가수준의 최소의 성취기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밝혀주는 일도 하고 또 학교에서 絕對評價를 하게 되었을 때 선생님들 任意評價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結果的으로 본다고 그러면 교수학습의 質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 教育部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는 학교차의 문제나 特殊目的高等學校의 문제때문

에 절대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미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것에 대한 보충자료도 되는 그런 評價道具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미 韓國教育開發院에서부터 이 연구가 시작이 되어서 금년도에 구체적인 絶對評價道具까지, 예시문항까지 개발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國家單位로 최소한도로 성취해야 될 기준 그리고 평가할 기준 그리고 어떻게 등급화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문항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될 것까지가 綜合的으로 연구되어지는 저희들 기관으로서는 상당히 큰 研究課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金許男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教育法 2條를 갑자기 말씀하셔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教育目的에 근거를 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평가 준거는 教育目的에 근거한, 주로 저희들은 學校教育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중에서 교육과정의 목표를 구체화시켜서 그것과 연계시켜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大學修學能力試驗에서 교과서내 교과서 밖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대부분의 문제가 소재자체는 교과서밖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內容水準은 教科書 내용수준에 맞추되 소재자체는 교과서밖에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만 부분적으로 소재자체가 교과서내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教科書의 공통적인 부분에서만 소재를 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金許男委員** 왜 그 말씀을 하느냐 하면 시험 한번 치면 그것이 어느 책의 어디에서 많이 나왔나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이나게 팔리고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는 그것이 다른 데서 나오고 그러면 아이들이 왔다 갔다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受驗生들이 정상적인 공부를 하면 누구든지 시험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教科書를 배우니까 교과

서와 비슷한 것을 내더라도 教科書의 共通點이 있는 것을 추려내서 그대로는 안 내더라도 비교해서 내더라도 그러한 출제방법으로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高等學校 教育을 正常化하는데 가장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朴道淳** 알겠습니다.

그리고 朴範珍 委員님께서 처음에 교육과정평가원이 생길 때 한국교육개발원과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기능이 재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개발원은 교육정책연구나 학교평가, 학교발전 지원업무 등을 주로 하는 政策研究機關으로 特化가 되어져 있고 저희들의 경우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학업성취 기준개발, 학력평가도구의 개발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래서 教育課程과 學力評價로 特化되어져 있고 또 이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이런 교과에 관련된 부분들은 인원 자체도 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되어져서 전문인력의 배경 자체도 이미 구분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朴範珍委員** 개발원에서 그 분야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朴道淳**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담당했던 분들이 다 저희들 기관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大學修能管理問題에 대해 전에 국립교육평가원에서 했던 관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별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행정 여러 가지 실정을 보아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때문에 아직까지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20여명의 教育部公務員이 저희들 기관에 파견 나와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저희들 직원이 함께 일을 하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전수 받아가면서 차근차근 이관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大學修學能力試驗이 資格考査로 전환되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모두가 자격시험으로 보라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대학에 따라서 자격시험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별도로 볼 수도 있고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져야 될 것인가는 아까 너무 간단히 보고를 드려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大學修學能力試驗의 長期發展 方案의 연구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專門研究要員 試驗을 저희들 기관에서 하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국방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出題專門機關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위촉이 와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험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국사하고 영어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과 대학원생들을 가지고 뽑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만 시험문제를 출제해 주고 관리해 주고 그리고 그 결과를 교육부를 통해서 국방부에 알려주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盧武鉉 委員님께서 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교육개발원과 국립교육평가원의 기능중에서 교육과정과 학력에 관련된 것을 하나의 기관으로 특화시키고 그리고 교육정책에 관한 것을 다른 기관으로 특화시켜서 교육개발원과 교육과정평가원이 구분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OECD연구중에서 주로 읽기, 듣기 그런 것만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OECD연구는 저희들이 研究計劃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OECD 가입국가 모두가 공동으로 하는 연구중에서 소위 범교과적인 내용을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고 또 OECD연구중에서 市民教育에 관한 연구도 따로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돈을 參與費로 여기에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것에 관여를 하지 않고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민교육에 관련된 것은 크게 사회과와 도덕과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바른생활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道德과 基礎生活習慣에 관한 교육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

게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아까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자세히 이것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 裁量活動時間 研究라는 것을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에서 學校長의 裁量에 의해서 일정시간의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연구중에서 市民이나 共同體 活動에 대한 지도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포함시켜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薛 勳 朴道淳 교육과정평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鄭喜卿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喜卿委員 두 기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관이 설립되고 처음 보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오리엔테이션은 받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朴道淳 院長님, 일문일답으로 잠깐 여쭙어 볼까요?

두 가지인데 고등학교 필수과목의 절대평가를 위한 연구, 이 연구를 하시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相對評價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絕對評價를 한다 그러셨는데 저는 양 축이라고 봅니다. 어느 한쪽이 기울어져서 안 된다고 보는데 저희 나라에서 지금 평가문제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어디가 되느냐 하면 늘 大學入學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서는 절대평가만 어떤 기준을 세운다고 해서 高等學校 學習의 質이 높아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이 의심을 품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평가나 절대평가나 평가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축들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教育行政이 그렇게 했는지 또는 일선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치우쳐요. 치우치다 보면 가다가 막히면 반대로 리액션 반동현상을 일으킨다고 할까요.

그래서 朴博士님같이 유능한 원장이 계시는 이 평가원에서 그 문제에 대한 밸런스라고 그럴까 조화라고 그럴까 그런 면을 생각하시면서 上空論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엑셀런스를 성취

할 수 있는 그렇게 교육평가를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그래서 어느 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학습의 질을 이것으로 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자신이 없어서 여쭙 봅니다.

또 하나는 같은 관계에서의 고민입니다마는 교육을 제대로 받음으로 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가 유능한 인간이다라는 것으로 충분한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大學入試와 관련이 되거든요.

금년에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도 저는 희망컨대 장관께서 입시문제 가지고 너무 씨름을 안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욕심이었습니다. 入試問題만 가지고 씨름을 하다보면 教育改革도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난 봄에 UCAS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발표가 되었다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하기를 연구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文化的인 差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것을 한번 깊이있게 검토를 하시고 이것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지금 9월18일에 공청회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10월에 어떤 결단을 내려서 발표를 하실 것 같은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학입학과 관련되는 업무는 지금 평가원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대학수능시험도 여기서 하고,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대학입학과 관련된 면접이었던지 뭐였던지간에 하여간 대학입학전형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교육부의 어디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혼자 教育部長官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기관이 뒷받침을 해주어야 될텐데 저는 그것을 평가원에서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거기서 안하시면 어디서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朴道淳 우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지금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학교현장에서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學校現場을 改善을 하는데 필요한 情報 자체는 역시 상대평가 보다는 주로 절대평가에 의해서 얻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평가가 모두가 다 절대평가 체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또 하나는 평가하는 방식을 가지고 정말로 學習의 質이나 教育의 質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의 질은 별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가가 지금까지 그만큼 학교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크게 영향을 받아 온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좋은 교육으로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의해서만 학교교육의 질이 바뀌어 진다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특히 최근에 어렵게 된 大學入學 銓衡制度와 관련 시켜서는 대학에서 학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크게 중요한 요소로 쓰이지 않는다는 가정 때문에 평가상황을 바꿈으로 해서 학교의 학습상황을 제대로 가게 하는데 조금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 관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UCAS에 대한 것을 어디서 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마도 시안에 보면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教育部次官 趙宣濟 평가원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절대평가 연구하고 상대평가의 문제점, 절대평가로 한다고 해가지고 2000년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그 동안 연구를 많이 해서 상당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절대평가를 연구하게 되고 선언했던 배경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기도 하고 또 반드시 그것이 필요한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大學入試를 변형시켜서 정말 이제 注入式, 暗記式 爲主의 교육을 지양하고 또 더불어서 私教育費 問題도 같이 해결하고 하는 여러 면에서 보았을 때 절대평가라는 내용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또 문항을 만들어서 부가했을 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기에 따른 課外가 또 생겨나지 않느냐 하는 우려까지 저희는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어제든 그 문제가지고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면을 연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지금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그 정책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UCAS문제는 먼저 번에 말씀하신 것이 몇개월 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 검토를 하면서 그것을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그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철저히 파악을 했고 그것을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실행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大學入試 問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입시를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변혁을 시켜서 제대로 기본적으로 初·中等教育을 정상화시키고 대학교육을 고도화시키는 두 가지 축으로 해서 대학입시라는 질곡과 병목현상을 해결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대학입시를 교육부에서 좌지우지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대학입시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입시를 하건 안하건 無試驗으로 하건 推薦制로 하건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할 문제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고 다만 지금까지 국어 영어 수학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런 면에서는 탈피해서 정말 변혁을 시도하겠다 그런 기본을 가지고 하고 있지 저희들이 어떻게 모든 학교에 무시험을 강요한다든가 추천제를 강요한다든가 시험을 보고 안 보고를 강요하는 이런 식은 아니고 그래서 서울대학에서도 확실한 내용들이 정해지지 않고 분란이 많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히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선도적으로 그 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대학들도 방향을 설정할텐데 그 내용들은 10월말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0월말경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엔 당장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2002학년도,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에서 3년 뒤에 대학에 들어 갈 때 그 시점을

정해 가지고 대학입시를 변형시켜 나간다는 것이 기본이고 내년 내후년은 조금씩 학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推薦入學의 比率을 높여 간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2002학년도부터 시작되는 3년 뒤의 내용도 10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취합하고 종합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喜卿委員 감사합니다.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연구하고 맡으셨다는 것은 自律化해 나간다는 면에서 아주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일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금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주류 메인스트림 연구가 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답변을 안 주셨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셔서 90개 기관에서 130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14만명의 失職者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셨는데 그것은 어떤 모델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제공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뭐니까?

그래서 모델프로그램같은 것이 있다면 저희들도 보게 한 부씩 그런 자료를 주시면 직업능력개발원 PR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 李茂根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구개발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職能院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금년에 연구를 시작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직업능력개발원의 금년의 큰 프레임을 보면 정부차원에서는 職業教育訓練促進法에 의해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직업교육훈련심의회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정부차원의 5개년 직업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政策立案에 필요한 基本研究 資料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산하에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정부차원의 정책연구의 기본골격을 두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직업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基礎研究, 政策研究, 現場研究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기

초연구 중에서는 한국인의 직업, 제가 보기에는 進路指導 및 職業貴賤意識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직업의식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전 국민 3,000명을 대표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특성을 파악해서 意識改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의 高校職業教育體制를 앞으로 어떻게 活性化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資格制度가 앞으로 학력사회에서 능력사회로 가는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자격제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했고 그 다음에 國家資格制度가 어떻게 민간자격제도가 어떤 형태로 발전되어야 되느냐 자격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교육이 이제는 量보다 質的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프로그램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프로그램평가와 기관평가에 대한 기본모형을 연구하는 것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교육개발원에서 직업기술교육추진본부가 했던 2+1의 교재개발을 금년에도 31책을 후속적으로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한 것은 教材開發이 특정적이라면 집필 자체가 교육계를 대표하시고 산업현장의 연구를 대표하시고 또 산업현장에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전문가를 대표집단으로 해서 가지고 집필하고 심의하고 해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 가서 정말 활용을 하고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鄭喜卿委員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68명의 연구사가 40개연구프로젝트를 가지고 씨름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는데 연구원을 더 보강하셔야 될 것 같고 개발원의 경우에는 행정직은 다 메꾸셨는데 연구팀은 3분의 1밖에 안돼요. 그런데 평가원의 경우에는 연구기관인데 이렇게 연구팀이 3분의 1밖에 보완이 안되어서 하루속히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薛勳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단체장 그리고 차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23분 산회)

○出席委員

盧武鉉 薛勳 朴範珍 鄭喜卿
金許男 金顯煜

○出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鄭 富 永
專 門 委 員 尙 元 鍾

○出席政府委員

教育部
次 官 趙 宣 濟
企劃管理室長 金 成 東
學校政策室長 任 東 權
平生教育局長 金 容 炫

○政府側參席者

教育部
教育課程政策審議官 俞 千 根

○其他參席者

韓國職業能力開發院
院 長 李 茂 根
監 事 成 耆 璇
副 院 長 李 銑 遠
企劃室長 姜 成 遠
課程開發部長 李 鍾 聲
評價資格部長 申 明 勳
總務部長 黃 興 培
韓國教育課程評價院
院 長 朴 道 淳
監 事 李 泰 雨
企劃調整室長 崔 錫 珍
教育情報支援室長 柳 栽 澤
教育課程研究本部長 趙 蘭 心
教育評價研究本部長 許 敬 哲
考查管理本部長 宣 炯 基
事務局長 李 東 純

【報告事項】

○交涉團體加入

새정치국민회의
朴 範 珍
9월2일자

○常任委員辭任및補任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涉團體
教 育	李榮一	鄭喜卿	새정치국민회의

(9월11일자)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渉團體
教育	洪準杓	黃祐呂	한나라당

(9월14일자)

○議案回附

教育部所管1997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

(9월1일 정부제출)

9월28일자 회부됨.

○報告書

教育部所管1997會計年度決算檢查報告

(8월31일 감사원 제출)

9월28일자 회부됨.

1998年度特殊教育年次報告書

(9월7일 정부제출)

9월14일자 회부됨.